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목주기도성월 10

장미송이로 엮어 만든 꽃다발

“연중 제 31주일”

<http://www.sjkoreancatholic.org/>

[루카 19, 1-10]

2010.10.31.

## 금주의 강론

[김 용배 신부님 강론에서]

오늘 복음은 다음 몇 가지 점을 가르치는 듯합니다.

**첫째**, 돈 많은 세관장이라면 그래도 자기 체통이 있고 남의 이목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뵈기 위해 창피스러운 것도 생각지 않고 나무 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행동이 놀랍습니다.

**둘째**, 주위 사람들로 부터 죄인이라는 욕설을 또 한번 듣게 되는 것도 개의치 않고 오로지 주님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데만 마음을 썼습니다.

**셋째**,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돈을 가로챘으면 네 갑절로 보상하겠다는 다짐이 용감하기도 합니다.

**넷째**,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일부도 아닌 재산의 반을 선뜻 나누어 주겠다는 약속 또한 놀랍습니다.

이러한 사실 하나하나가 오늘 흡족하게 주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형편과 비교해 보십시오. 주님을 뵈기 위해 자캐오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십시오. 자기 위신, 체통, 개인 사정 따위는 염두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자신의 체면만을 앞세우며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고 자기 위신을 지키면서 맨 나중에 그리스도를 찾으려니 우리 생

활에서 항상 주님을 놓치고 있는 실정이 아닌지요? 또한 둘째로, 우리는 나라의 돈이나 공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돈이 큰 돈이건 적은 돈이건 불의하고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일은 없었는지요? 있었다면 어떻게 피해 보상을 했는지요? 오늘 자캐오는 어떻게 주님께 다짐했는지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우리의 것을 나누면서 살아오고 있는지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이 용단을 보십시오. 이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모두 그를 죄인이라 욕을 하고 빈정댔지만 주님은 그와 그의 집안에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거룩한 연옥 영혼들과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느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과 쉬는 교우들을 위해서 라는 지향을 미사에 참례때 혹은 기도하면서 붙이면 매우 큰 선행과 보속을 하는 것입니다.



## 가족 동정 및 공지 사항

- **박 정자 마리아 자매님** 11/2부터 약 2개월의 여정으로 한국 및 동남아 여행을 떠납니다. 항상 어디에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위령성월 묘지 미사**  
11월 6일(토) 오전 11시, Gate of Heaven에서 위령성월을 맞아 위령미사가 있어오니 간단한 점심을 준비해 오시어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11월 위령성월을 맞아 교회에서 신자에게 주는 특전**  
11월 1일부터 11월 11월 8일까지 묘지를 방문하여 기도하면 하루에 한 연령에게 전대사를 허락 하십니다. 이 전대사는 죽은 이에게만 허락하시는데 가족이나 이웃의 가장 불쌍한 연옥 영혼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8일 동안 8번 얻을 수 있습니다.



If someone feels that they had never made a mistake in their life, then it means they had never tried a new thing in their life.

“인생에 있어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새로운 시도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이다.” - EINSTEIN -



그때에 1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2 마침 거기에 자캐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3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4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5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6자캐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7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이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8그러나 자캐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9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10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1분 명상

♡" 위령성월에는....."♡



무덤속에서본 하늘입니다

모든 사제는 3대의 위령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

3대의 미사 중 한 대는 예물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미사는 모든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셋째 미사는 교황의 지향에 따라 봉헌한다, 교회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중에 성총지위(고해 성사를 받고 영성체 한 상태)에 있는 이가 묘지를 방문하여 전대사를 받기를 청하며 교황의 뜻에 따라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하면 전대사가 주어지는데 이를 연옥 영혼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들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주시라 확신합니다.

토막 교리

“대사”

1. 대사는 용서하다, 탕척하다는 뜻이니, 교황이나 혹은 주교가 성교회 보고에서 은사를 펴내어 교우들의 죄보속을 면하여 주는 것입니다.
2. 죄보속 또는 죄의 잠벌이라 함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마땅히 받을 형벌이 두 가지 있으니, 첫째는 영벌이요 둘째는 잠벌입니다.. 범죄후 고해성사를 받거나 혹은 상등통회를 받으면 죄의 악은 사해지나, 잠벌은 남아 있어서, 현세에서나 혹은 연옥에서 기워 갚아야 하니, 지금 말하는 대사는 이 잠벌을 면하기 위하여 받는 것입니다.
3. 대사를 얻는 규칙 :  
대사를 얻으려면 세가지 규칙을 지킬 것이니,  
은총지위에 있어야 하니, 대죄가 있으면 고해성사를 받거나 상등통회\*를 받할 것이요,  
대사를 얻을 뜻을 두고, 교황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주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친다.